



27일 전북소방본부가 119행복하우스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사랑의 집을 선물합니다

도, 도내 화재피해주민에 제2호 119행복하우스 마련

전북도는 지난 5월 불의의 화재로 집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새 집을 선물하는 119행복하우스 준공식을 27일 군산시 대야면 인근 마을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택은 지난 5월 8일 오후 6시 42분경 발생한 화재로 주택 1동 84㎡ 중 60㎡가 소실되어 1,26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당시 화재

로 인해 주택 내부에 있던 백옥녀(여,85세) 어르신께서 열꽃 및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날 행사는 신축된 119행복하우스 앞마당에서 열리며 ▲사업추진 경과 보고 ▲119행복하우스 커팅식 ▲행복 열쇠 전달식 ▲축사 ▲기념촬영 ▲주택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많은 분들의 사랑이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 제2호 119

행복하우스라는 기적을 낳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백옥녀 어르신께서 새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19행복하우스'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의 처참함을 목격하면서, 불의의 화재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이웃들의 처지를 보며 마음 아파하다가 불타버린 찌꺼기 속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움을 수 있게 하고자 실시된 반 기금을 모아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김진성 기자

화재로 어려움 겪는 주민 격려

송하진 도지사, 마을공장 화재 김제 향토마을 방문

전북도는 27일 김제시 용지면 향토 마을에서 작년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생생마을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하진 도지사, 전대식 김제부시장, 은주현 김제시의장, 노규식 김제시의원, 이영희 이장 외 마을 주민 50여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작년 9월 마을가공시설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향토마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마을주민들은 작년 화재 이후에도, 김제시의 다각적 지원을 통해 고구마 말랭이 가공시설이 어느 정도 복구되었고 주민들도 전국마을기업 경진대

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고구마 원료 보관과 1차 가공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황해도 신흥면과 후손들로 이루어진 마을 주민들은 11월 22~24일 까지 백령도를 방문해 눈앞에 두고온 고향 황해도를 바라보면서 망향제를 지낼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월 재방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을을 다시 찾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참석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민 이해도 낮아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한 경험자 1000명과 미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률은 경험자가 46.5%, 미경험자가 21.4%로, 경험자와 미경험자 간 2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벌어졌다.

지난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이 약 20%에 불과했다는 점을 볼 때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뉴시스

2020 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에 '군산' 확정

해수부 심의 거쳐... 선유도 해수욕장 일원서 개최 내년엔 열리는 대회는 8월 경기도 시화호 일원서

제15회(2020)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전북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열린 '전국해양스포츠제전위원회'에서 '전북 군산시'를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도시로 선정했다.

지난 9월 해수부가 실시한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도시 공모에 경북 포항시와 전북 군산시가 신청했다.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현장 실사와 발표 심사를 진행했고 전국해양스포츠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 도시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전 유치를 신청한 군산시는 선유도해수욕장과 은파호수 등 해양레저스포츠 경기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해양자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제27회 리갯타대회, 제22회 바다의 날 등 풍부한 대회 등을 개최했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고용·산업 위기 특별지역이라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제전 유치를 신청한 두 도시의 해안 특성, 경기장 여건 등 유사한 점

이 많아 마지막까지 치열한 논의가 계속됐다"며 "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해양스포츠제전이 함께 열리는 2020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도시는 위원회를 통해 제전 개최 20개월 전까지 선정해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최 도시에는 국비 약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기 대회는 2019년 8월에 경기도 시화호 일원에서 개최된다. 경기도 시화호·안산시·화성시·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공동 주최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

전북도, 14개 시군 민간건물 공용화장실 28개소 대상

전북도는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14개 시군 민간 건물에 남녀 공용 화장실 28개소이다.

본 사업은 남녀 공용 화장실의 국민적 불편이 높고 범죄에도 취약해 행정안전부에서 1억4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다.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의 1개소당 사업비는 2000만원(국비 5, 시·군

비 5, 민간부담 10)으로 사업비의 50%인 1000만원이 민간 부담으로 시·군에서 공모를 통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유흥접객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남녀분리가 시급한 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주변 환경을 감안하여 효과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복지국장은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사업을 조

기에 추진하여 화장실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있는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문건위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효운)는 27일, 임실과 남원 및 순창지역의 문건위 소관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했다.

첫 번째 사업장으로는 지난 10월 준공한 '전라북도 국제양궁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추진경과를 전달받고, 양궁장 내부를 시찰했다.

문건위원들은 2019년부터 임실군이 위탁관리를 하는 만큼 도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양궁장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국악의 보고장인 남원으로 간 문건위원들은 '남원시립국악원'을 방문하여 국악관련 전시관 및 체험실이 있는 국악의성지전시관을 시찰하며, 전북이 전통문화의 대표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통보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순창의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사업소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시험실 시찰 및 소관 장비들을 점검하며,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OECD, '포용적 성장' 연구사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OECD가 지난 5월 채택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실행 기본체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는 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6회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국의 사례가 포용성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들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OECD는 지난 5월 정책실행 기본체계를 만들어 발표했다. ▲소외된 사람 및 지역에 대한 투자 ▲비즈니스 역동성 및 포용적 노동시장 지원 ▲효율적이고 대응하는 정부 도모 등 3개의 주요 축을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 및 추이를 측정하고 평가해, 실행 가능한 정책 권고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우리나라는 OECD와 본격적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해 기본체계 적용대상이 된다.

문 대통령은 "OECD는 지금 지구촌의 삶을 바꿔가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기조로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 발전과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최근 한국정부는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며 "OECD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과 같은 취지"라고 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사회·경제·환경을 포괄해 정책활동 방안 등을 논의하는 OECD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센터장 서 영화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